

# 국제 인권 동향

## Human Rights Worldwide

### 1.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소식

#### 제 31차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 회기(8월 24일) -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 성명서(요약)

현재 아프가니스탄 내 탈레반 점령 상황에 대해 아프간 국민들은 인권 침해가 일상적으로 자행되던 이전 상황으로의 회귀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최근 몇 주 간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이 침해당하고 인권 유린이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OHCHR은 탈레반이 장악한 여러 지역에서 즉결 처형, 여성 이동권 박탈, 소년병 차출, 평화 시위 및 반대 의사표시 금지 등의 인권 침해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아프간 인권 옹호자, 시민단체, 여성, 언론인 등을 포함한 국민들은 탈레반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유엔 아프간지원단(UNAMA)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내 1월 한 달간 민간인 사상자 수는 작년 동월 대비 50% 상승하였고 해당 수치는 7, 8월에도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사무총장 특별대표(SRSG)는 1800만 여 명의 아프간 인이 현재 급박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7월과 비교하여 2배 증가한 수치이며, 전체 국민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인구입니다. 앞으로도 아프간 강제 이주민의 수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이들은 인접국가 혹은 중동 이외의 지역으로 도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발표한 성명서에서 탈레반은 이슬람 율법 해석에 따라 여성의 노동권 및 교육권을 존중하고 여러 민족과 종교 또한 존중하며, 아프간 정부 및 국제 사회와 협력해 온 인원들에 대해 보복을 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제는 탈레반이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인권은 지난 20여 년 간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2021년 기준, 아프가니스탄 의회 의원 중 27%, 공무원의 20%가 여성이며, 350만 여 명의 여성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는 초등교육을 받는 여성이 전국적으로 9,000여 명 밖에 되지 않고, 여성의 중, 고등학교 진학이 금지되어 있던 1999년과 비교하면 굉장한 성장입니다. 최근 20여 년 간 이어져 온 변화의 물결은 사람들의 생각과 현실을 바꾸어놓았고, 이러한 변화는 쉽게 되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한 국가의 발전과 번영이 지속되려면 국가 내 구성원들이 차별, 탄압을 겪지 않아야 하며, 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자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는 탈레반의 적법성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 및 지역 내 기구, 타 국가로부터의 존중을 스스로 잃는 행위입니다.

OHCHR은 아프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통치 규범을 채택하고 오랜 갈등으로 고통 받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며 사회 통합 및 화해 프로세스 재건을 위해 노력할 것을 탈레반에 강력히 권고합니다. 탈레반은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아프간 여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이들의 자유를 존중하며 이동권, 교육권 및 개인 의사표현을 존중해야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회 저변에 자리하는 차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 민족, 종교 등 다양한 집단을 대표하는 구성원이 참여하는 포괄적인 대화의 장 또한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인권 운동가들에게 보복 및 제재를 가하지 않아야 하며, 아프가니스탄 인권위원회의 독립된 권한 및 운용 또한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신변을 보호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세계 각국에게 아프가니스탄 국민에 대한 안전한 도피처를 제공할 것과 난민 지위승인 및 재정착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 보호를 요청한 아프간 국민에 대한 추방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인접국은 아프간 난민 수용을 위해 필요한 물류,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아울러 OHCHR은 탈레반 조직이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국제 사회가 탈레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국가들은 종교 및 문화적 관점에서 그들의 인권 보호 및 증진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탈레반의 인권 관련 약속 이행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 및 기구를 마련할 것을 인권이사회에 촉구합니다.

유엔 회원국의 단결된 행동을 통해, 이전의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인권 탄압 사회로의 회귀는 국제 사회에서 과거에도 용납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용납될 수 없음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미 많은 인권의 발전이 이루어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출처: 유엔인권 최고대표 성명서

## 2. 국가인권위원회 소식

### 국가인권위원장, 제 26차 아태지역국가인권기구포럼(APF) 연례회의 참석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9월 15일과 16일 양일 간 화상으로 진행된 아태지역국가인권기구포럼(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PF) 연례 회의에 참석하였다.

APF는 1996년 설립된 아태지역 내 25개국 국가인권기구연합체로, 연례회의(Annual General Meeting)를 개최하고 있다.

회의는 로잘린 크라우처 APF 의장(호주 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인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안건 채택 및 논의에 앞서, APF 회원 기구 중 하나인 아프가니스탄 독립 인권위원회의 현 분쟁 상황 관련 발표가 진행되었다.

15일(수) 회의는 APF 연간 (2020. 7. ~ 2021. 6.) 성과 보고, 성(평등) 주류화\* 현황 관련 논의, 연간 회계감사 보고서 채택, APF 거버넌스 위원회 공식 위원 및 GANHRI 집행이사회 대리 위원 선출, GANHRI 의장 보직을 위한 APF 지명자 선출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15일 회의 중 진행된 투표에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APF 거버넌스 위원회 위원으로 당선되었으며, 2022년 9월까지 거버넌스 위원회 위원으로서 1년의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거버넌스 위원회에서는 APF 총회에 전략계획, 회원기구 가입, 정관 변경 등 중요사항에 대해 권고한다.

16일(목) 회의에서는 UN여성차별금지실무그룹의 위기 상황에서의 여성 성적 · 재생산 관련 건강권을 주제로 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 성 주류화 (Mainstreaming Gender Equality): 1985년 나이로비 세계 여성 콘퍼런스에서 처음 도입된 개념으로, 성 평등 시각(Gender Equality Perspective)이 정책결정 행위자들에 의해 모든 정책 수준 및 단계에서 반영되도록 하는 조직화와 개발, 정책과정에 대한 평가를 뜻함.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및 유엔 여성기구)

## 3. 국제노동기구(ILO) 소식

### 국제노동기구 (ILO) 보고서: 전 세계 40억 명 이상,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에

국제노동기구(ILO)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40억 명 이상의 인구가 여전히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 사회적 보호 보고서 (2020-22): 기로에 놓인 사회 보장제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에서는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한 최근 발전 사항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며, 코로나19가 사회보장제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보고서는 사회보장제도의 간극을 설명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의 제'와 관련한 주요 정책 권고사항을 소개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인구의 47%는 최소한 종류 이상의 사회보장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41억 명의 인구(세계 인구의 53%)는 자신이 속한 국가의 사회 보장제도로부터 소득 보장 등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 보장제도 혜택은 지역별로도 그 격차가 상당히 크다. 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은 국민의 84%가 최소한 가지 이상의 사회 보장제도로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미주지역 또한 64.3%로 세계 평균을 웃돌았으며, 그 다음은 아태지역(44%), 아랍 지역 국가(40%), 아프리카(17.4%)가 뒤를 이었다.

전 세계 아동의 4명 중 한 명만이(26.4%)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출산 여성의 45% 정도만이 수당을 지급받았고, 중증 장애인 3명 중 한 명만이(33.5%) 장애 수당을 받고 있다. 실업 급여를 보장받는 인구는 이보다 더 적었고(18.6%) 전 세계적으로 77.5% 정도의 인구가 연금을 보장받고 있으나 지역, 도농, 남녀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각국 정부 지출 격차도 심하다. 각국은 평균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2.8%를 사회보장제도에 사용하고 있었으나(의료 부분 제외), 고소득 국가에서는 GDP의 16.4% 가량을 사회보장제도에 사용하는데 반해, 저소득 국가에서는 GDP의 1.1% 정도만을 사회보장제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커다란 격차를 보여준다.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 시행을 위해 GDP 상에서 저소득 국가는 15.1%, 중저소득 국가는 5.1%, 중고소득 국가는 3.1%를 차지하는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LO 사회 보호국장 사하라 라자비는 "현재 많은 국가들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대규모로 예산을 지출한 이후, 재정 강화를 위해 예산 편성을 줄이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축소하는 것은(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치명적인 처사가 될 것"이라 우려하였다.

출처: ILO Report: World Social Protection Report 2020-22 Social protection at the crossroads - in pursuit of a better future

#### 4. 유엔난민기구(UNHCR) 소식

##### 유엔난민기구(UNHCR) 아태지역사무소 보고 서: 미얀마 사태 최신 자료 발간

유엔난민기구(UNHCR) 아태지역사무소가 9월 15일 발간한 미얀마 사태 업데이트 자료에 따르면,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2021년 2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미얀마 내에서 208,000여 명의 국내 실항민이 발생하였다. 이는 9월 1일 기준으로 집계한 것보다 18% 증가한 수치이다.

8월까지 미얀마 중부 및 남부 지역에서 군부와 의 갈등이 지속되었고, 9월에는 이러한 양상이 심화되어 국내 실항민 급증의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유엔난민기구(UNHCR) 아태지역사무소는 미얀마의 국내 실항민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미얀마 국내 실항민 지원을 위해 유엔난민기구는 협력 기관과 함께 설치한 코로나19 격리센터 및 전국 각지의 국내 실항민 캠프에 물품지원키트(NFI)와 임시거처 건설 자재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피난처 수리 및 보수를 지원하고 국내 실항민 캠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물품이 있는지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 아태지역사무소의 자료 조사 기간 동안, 미얀마의 접경국인 태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국경을 상당 부분 폐쇄하고 임시 검문소를 일부 개방하여 물자만이 오갈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이 때문에 미얀마-태국 국경에서의 대규모 난민 이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유엔난민기구는 태국 정부 및 태국 내 인도주의 단체와 협력하여 향후 6개월 간 매달 4,000여 명의 난민이 유입될 것이라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하여 대규모 난민 수용을 준비 중에 있다.

또한, 쿠데타로 발생한 혼란을 피해 인도로 피신하여 9월 15일 현재까지도 인도 국경지대에 남아있는 미얀마 난민은 약 15,000여 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인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얀마 지역의 국내 실항민 수가 9월 한 달 간 3배 이상 급증하는 현상을 보였다.

인도의 시민 사회단체는 이들 난민에 대해 UNHCR 및 정부와 함께 여성, 아동, 노인 그리고 맞춤형 도움이 필요한 그룹을 우선으로 지원하고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WASH(물 및 위생) 관련 물품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미얀마 국내 실항민에 대한 코로나19 접종은 65세 이상 노인을 우선으로 하여 진행 중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접종 대상 인원에 로힝야 족을 일부 포함시켰다.

출처: UNCHR Regional Bureau For Asia and Pacific(RBAP) - Myanmar Emergency Update (as of 15 September 2021)

#### 5. 주요 국제회의 일정

##### ▲ APF(아태지역 인권기구 포럼)

일 시	회의 명
2021/9/15-9/16	APF 연례회의

##### ▲ GANHRI(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일 시	회의 명
2021/10/22	GANHRI 승인소위원회(Sub-Committee on Accreditation, SCA) 등급 심사

##### ▲ UN

일 시	회의 명
2021/9/13-10/8	유엔인권이사회 제48차 회의
2021/11/1-11/12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실무그룹 제39차 회의

#### 국제 인권 동향

국제 인권 동향은 위원회 직원들의 국제 인권 의식 교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월 1회 발행됩니다. 각 과에서도 관련 소식이 있으면 언제든 알려주십시오. 제안 및 의견은 아래로 부탁드립니다.

정책교육국 국제인권과  
담당자 이지현 ljh820@nhrc.go.kr